

孝宗의 國葬 및 實錄印出, 遷陵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A Study on the Engravers Mobilized to the Works Related with Hyojong(효종)

김 상 호 (Kim, Sang-Ho)**

◁ 목 차 ▷

- | | |
|----------------|--------------------|
| 1. 緒言 | 3.2 身分別 |
| 2. 刻字의 일과 刻手動員 | 4. 主要 刻手의 活動 |
| 2.1 國葬 | 4.1 京刻手 金愛立과 刻僧 學淳 |
| 2.2 實錄印出 | 4.2 寺刹板의 刻手 |
| 2.3 遷陵 | 5. 結語 |
| 3. 刻手秩의 分析 | <참고문헌> |
| 3.1 地域別 | |

< 초 록 >

본 연구는 의궤의 기록에 근거하여 효종과 관련된 국장, 실록편찬, 천릉의 세 가지의 역사를 중심으로 각자 일의 성격과 각수의 활동사실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왕실역사는 단기간에 솜씨 좋은 많은 각수가 필요하였으나, 경각수로 충당이 되지 않아 외방각수, 각승 중에 선수들을 선발하였고, 이들은 다수가 석각이나 목각에 관계없이 각자에 능했으며, 사찰의 개관불사 등 여러 지역의 각자 일에 무리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수명은 활동 연대도 중요하나 지역보다는 동료 각수들을 살펴봄으로써 동일인물의 여부를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다. 당대 이름 있는 각수로 이수일, 이유일 형제와 송득, 홍실현, 김애립, 법관, 학순 등이 확인되었다.

要語: 각수, 의궤, 김애립, 학순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접수일: 2010년 12월 8일 최초심사일: 2010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12월 2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ngravers mobilized to work for the royal funeral, the publication of a royal diary, and the movement of a royal tomb, related with King Hyojong(孝宗), by examining the record of Uigw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 facts and characteristics have been clarified: Since it was not easy to recruit a lot of engravers in the capital city to finish a royal project in a short period of time, many engravers and engraving monks were also called from countryside and buddhist temples. Many of them were very skilled at engraving block letters, on both stones and woods, and usually worked together as a team at Dogam(都監),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or buddhist temples. Therefore, in order to identify the engravers, it is more appropriate to examine other engravers who worked together at the same time, than to examine their individual work area or period. During this period some famous engravers, including Yi Suil(李秀一) brothers, Song Deuk(宋得), Hong Silhyeon(洪實賢), Kim Aerip(金愛立), Beopgwan(法寬), and Haksun(學淳) etc. could be identified.

Key words: engravers, Uigwe(儀軌), Kim Aerip(金愛立), Haksun(學淳)

1. 緒言

朝鮮시대에 刻手들이 무엇을 각자하였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였는가에 대한 기술은 儀軌만큼 자세한 것이 없다. 朝鮮의 많은 王室役事에서 그것이 嘉禮이거나 吉禮이거나, 또는 凶禮이거나 간에 玉冊, 竹冊, 誌石, 文獻 등 다양한 기록류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수반되었고, 이에 전국에서 숨겨 있는 刻手들이 특별히 선발되어 刻字의 일을 맡았다.

儀軌를 참고로 한 刻手의 연구는 英祖와 正祖, 憲宗年間の 王室墓域 정비나 國朝寶鑑 간행사업을 중심으로 이미 수행한 바 있으나, 木刻手와 石刻手의 활동 영역, 중복성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다. 漢陽에 거주한 玉冊 전문의 刻手는 별개이다. 당시 玉刻手는 木刻手나 石刻手의 善手 중에 특별히 玉刻字의 경험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木刻手와 石刻手의 문제는 문헌상에 별개로 언급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이나 개인별 성향을 보다 窮究할 필요가 있다.

儀軌 가운데 17세기에 작성된 것들은 초기의 傳本에 해당한다. 그 수가 적지 않아서 刻字 일이 없는 것을 제외해도 전체를 망라적으로 다루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런데 顯宗朝에 진행된 孝宗관련의 세 가지 役事, 즉 國葬과 實錄編纂, 寧陵 遷陵의 일은 玉冊과 文獻, 誌石의 刻字 일이 구분되어 있어서 木刻手와 石刻手의 영역 문제를 보다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그 일 전후의 여러 儀軌를 참고로 17세기 刻手 활동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당대 이름 있는 刻手が 누구였는지, 그리고 어떤 刻手들이 寺刹板의 開板에 참여하였는지 확인하고, 거주지역이 밝혀진 刻手에 한정해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刻手名目錄을 작성하고자 한다.

2. 刻字의 일과 刻手動員

2.1 國葬

孝宗의 國葬에 관한 일은 顯宗 즉위년(1659)에 작성된 『孝宗國葬都監儀軌』에 자세하다. 해당 都監에서 刻字의 일이 필요한 謄冊과 哀策, 竹冊, 誌石 등을 만드는 일은 3房이 관장하였다.

謄號를 올리는 문서인 謄冊은 上護軍 趙綱이 製述하고 吏曹判書 宋浚吉이 書寫하였는데, 그 본문은 모두 575字에 달하였다. 그 재료는 南陽의 靑玉을 사용하였으며, 그것의 1間의 크기는 길이 9촌 7분, 넓이 1촌 2분, 두께 6분으로 하고, 1間에는 12字를 적을 수 있도록 정하여졌다. 매 6間을 합하여 1貼으로 삼았으므로 1貼에 새길 수 있는 글자는 모두 72字이나, 改行을 하여 謄冊을 1件을 만드는 데 모두 12貼 72間이 소요되었다.

다음으로 孝宗의 國葬시 만든 哀冊 1件은 그 체제가 위의 謄冊과 같은데, 大提學 李一相이 製述하고 左尹 申翊全이 書寫하였으며, 그 본문은 그 길이가 모두 929字에 달하였다. 따라서 위의 謄冊보다 많은 분량의 20貼으로 제작되게 되었다. 그리고 별도의 內上用 竹冊이 만들어졌는데, 儀軌에서 그 내용은 자세하지 않다.

國葬에서 刻手의 刻字役이 필요한 남은 일은 誌石에 刻字하는 것이다. 孝宗의 寧陵의 誌石은 그 본문을 左參贊 宋時烈이 製述하고, 吏曹判書 宋浚吉이 書寫하였다. 儀軌에는 高低 空行을 합하여 모두 3,340字가 들어가는 것으로만 계산이 되어 있다. 재료는 忠州石을 사용하였는데, 크기는 길이 5尺, 넓이 4尺 5寸, 두께 6寸 9分이다.

이렇듯 孝宗의 國葬에는 竹冊을 포함하면 모두 5千字가 넘는 刻字의 일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이를 위해 漢陽에서 14명, 忠淸道에서 7명, 全羅道에서 26명, 慶尙道에서 6명의 刻手가 동원되었고, 이 중에는 刻僧도 25명이나 포함되었다.

2.2 實錄印出

『孝宗實錄』은 21卷 22冊의 분량으로 在位 10년간의 사실을 담고 있는데, 顯宗 11년(1660) 5월에 시작하여 이듬해 2월에 마무리되었다. 65張 분량의 해당 儀軌에는 纂修 첫해 7월 19일에 忠靑과 全羅 監司에게 보낸 문건이 실려 있다. 그 내용은 8월초에 實錄을 印出하고자 하는데, 京中에 刻字匠이 부족하고, 막중한 印出의 일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으니, 庚寅年(1650) 實錄 印出 시 등록된 刻手들을 8월 5일까지 도착하도록 조치하되 혹 탈이 있는 자는 다른 善手를 정해 보내라는 것이었다. 거기에 적시된 刻手는 忠淸道 木川의 勝嚴, 槐山의 雲際, 忠州의 信奇, 坦默, 西原의 義修, 裕憚, 全羅道 全州의 鄭時遇, 盧京錄, 泰仁의 李生立, 扶安의 覺行, 古阜의 印信, 求禮의 姜永錄 등이었다.¹⁾

그런데 儀軌의 工匠秩을 확인하면 실제 동원된 인원은 義修 한 사람뿐이다. 10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거의 전부가 다른 善手로 교체된 것이다. 지역별로 동원된 인원은 漢陽에서 7명, 西原, 潭陽, 長城에서 刻僧 각 2명, 그리고 槐山, 古阜, 光州, 南原, 錦城, 順天에서 각기 刻僧 1명으로 모두 19명이다. 이는 『仁祖實錄』을 인출할 때의 인원 15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수이다. 儀軌의 8월 14일자 문건을 참고하면, 實錄 印出 시 필요한 활자를 守藏 등이 일일이 조사한 결과 종전의 木活字들이 부서지거나 깎여져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십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는바, 그 刻字匠들이 새겨야 글자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²⁾

2.3 遷陵

顯宗14년(1673)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楊州의 孝宗 寧陵을 驪州로 옮긴 일이 해당 儀軌에 적혀 있는데, 誌石과 表石, 哀冊에 관한 일은 都監의 3房에서 관장하였다. 儀軌에 실린 8월 22일자 稟目을 참고하면, 誌文은 대략 4천 5백여

1)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 7월 16日. “京中刻字匠尤甚不足莫重印出之役不可一日遲滯(以下省略).”

2) 上揭書, 8월 14日. “從前木字或破或刮可用之字不及十分之一.”

字로 誌石 2片에 각기 刻手 16명이 일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이 하루에 10字를 새기는 것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4천 8백 字를 새길 수 있으나, 刻手 李守一 형제와 韓振國 등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하루 10字에 미치지 못하고, 더 모자란 사람은 며칠이 지나도 4, 5字를 새기는데 글자의 모양이 잘나오지 않는다고 하였다.³⁾ 이는 솜씨가 부족한 일부 刻手의 경우에 그들이 원래 初手라기보다는 石刻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木刻 善手が 잘못 올려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寧陵의 遷陵 때 쓰인 江華石은 어느 때의 것보다 품질이 매우 견고해 刻字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都監에서는 중대한 功役임에도 漢陽에 있는 刻手의 수가 원래 적으니 外方 匠人 중에서 젊고 솜씨가 좋은 刻手를 上送하도록 미리 江原道와 忠清道, 全羅道 慶尙道에 주문했었다.⁴⁾ 그리하여 7일 뒤 都監의 3房에 여러 刻手들이 도착하였다. 하지만 都監에서는 비록 사람이 많기는 하나 善手는 별로 없고, 전에 비해 誌石의 刻字 일은 어렵다고 하여 黃海道에 手法이 심히 정교하기로 소문난 安岳의 刻手 宋得과 洪實賢을 빨리 올려 보내도록 주문하기에 이르렀다.⁵⁾

8월 7일의 문건을 참고하면, 각 道에서 올라온 36명의 刻手 가운데 20명은 善手라 하여 남겨두고, 不才한 16명은 남아 있어도 무익하다고 하여 일차 放送하기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康津의 信吾, 義城의 斗英, 星州의 森益 등 4명은 남게 하고, 鎭川의 覺元, 淸州의 戒哲, 順天의 法徵, 樂安의 金宗賢, 咸平의 金哲伊, 柒谷의 金默淡, 仁同의 承允, 醴泉의 金命得, 善山の 弘律, 比安의 覺獐, 永川의 印監, 尙州의 金應龍 등 12명만 放送하였다.⁶⁾

그리고 다시 8월 10일에 刻手의 솜씨를 試取하여 不才하거나 年老한 사람을

3) 『孝宗寧陵遷陵都監儀軌』 稟目 8月 22日. “誌文大約四千五百餘字 誌石二片良中 刻手十六名當爲始役 一人之一日所刻十字則 一朔當刻四千八百字(中略) 刻手李守一兄弟及韓振國等五名外 皆莫能日刻十字 其中劣者至有日刻四五字之類云.”

4) 上揭書, 稟目 7月 2日. “誌石段功役既重 在京刻手元數亦小吃分不喻 且聞江都石品甚堅入刻極難 若不推捉外方匠人(以下省略).”

5) 上揭書, 稟目 7月 9日. “今聞安岳刻手宋得洪實賢等手法甚精罕有其比(以下省略).”

6) 上揭書, 石誌石所手本 8月 7日 記事參照.

放送하였는데, 이들은 公州의 玄玉, 大興의 儀祥, 潭陽의 方象坤, 南原의 鄭起龍, 興陽의 雪仁 등이며, 이 때 淸州의 高聖明은 放送되었다가 堂上의 分付에 의해 다시 推捉된 경우이다.⁷⁾

誌石의 刻役은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9월 18일에 일단 마무리되어 우선 外方 刻手 13명을 다음날 放送하였으며,⁸⁾ 兩邊 校正과 大字 刻役을 위해 漢陽에 거주하는 李秀一 등 10명은 남겨 두었고, 10월 6일에는 그 중 刻手 8명을 篆文을 새기기 위해 表石所로 이송하였다.⁹⁾

3. 刻手秩의 分析

3.1 地域別

孝宗의 國葬과 實錄印出, 遷陵과 관련한 顯宗朝의 세 役事に 참여한 刻手를 儀軌에 기재된 居住地域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地域別 刻手人員

都監名	京	京畿	忠淸	全羅	慶尙	黃海	계
孝宗國葬都監	14		7(3)	26(18)	6(4)		53(25)
孝宗大王實錄纂修廳	7		3(3)	9(9)			19(12)
孝宗寧陵遷陵都監	7	1(1)	14(8)	6(1)		1	29(10)
계	28	1(1)	24(14)	41(28)	6(4)	1	101(47)

* ()안은 그 중 刻僧의 人員.

7) 上揭書, 石誌石所手本 8月 10日. “誌石刻手才不才 依分付試取 則其中六名最不才及年老者留待無益.”

8) 上揭書, 石誌石所手本 9月 18日. “兩邊校正及大字刻役次 以京居刻手李秀一等十名(以下省略).”

9) 上揭書, 石誌石所手本 10月 6日 記事參照.

위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孝宗에 관한 세 가지 役事에 동원된 刻手의 연인원은 101명이다. 그 중 漢陽에 거주하는 刻手が 28명이고, 地方에 거주하는 刻手는 73명이다. 地方이 2.6배 정도 그 인원이 많다. 그리고 地方의 경우에는 民間刻手が 26명, 刻僧이 47명을 차지한다. 刻僧이 1.8배 정도 더 많은 것이다. 그러한 차이는 玉冊이나 木活字, 誌表石 등 刻字 대상에 따라 약간은 그 수치가 다르지만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다만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國葬의 경우에 全羅道 등에서 많은 刻手が 동원되었고, 遷陵의 일에는 특별히 忠淸道の 刻手が 대거 동원된 것이 큰 차이라고 하겠다.

3.2 身分別

孝宗의 國葬에 동원된 京刻手는 李忠民, 吳有進, 韓振國, 閔戊仁, 金種金, 吳鶴, 金秋業, 鄭淑良, 李秀一, 李惟一, 李仁益, 韓斗星, 權士仁, 劉太龍 등 14명이다. 그리고 孝宗實錄印出에 동원된 京刻手는 金種金, 金愛立, 韓斗星, 柳楠, 金信起, 崔萬元, 金益天 등 7명이며, 遷陵에 동원된 京刻手는 李秀一, 李惟一, 韓振國, 徐後悌, 權士仁, 李五龍, 崔萬元 등 7명이다.

위의 인원에서 實錄印出을 위한 木活字의 刻字 일을 한 刻手が 그 刻字의 성격이 다른 役事に 참여한 예는 金種金, 韓斗星, 崔萬元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刻手の 刻字 솜씨가 그 材料에 따라 우열은 있었겠지만, 材料에 따라 刻手の 직분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때에 따라 木刻手나 石刻手, 또는 玉刻手로 구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國葬과 遷陵의 일에는 15년의 차이가 있어서 國葬 때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었을 刻手들이 나중에 遷陵 때에는 그 중 원로로 일하였음을 그들 이름의 기재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國葬 때 원로였을 刻手들은 遷陵 때에는 이미 年老하여 거동하기도 어려워 참여하지 못했을 수 있다. 비록 당시 儀軌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으나 京刻手 중 상당수는 校書館에 소속된 刻工이었을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¹⁰⁾를 근거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外方の 民間刻手로 孝宗 國葬에 동원된 이는 忠淸道の 朴仁永, 鄭武生, 金守一, 李自順 4명과 全羅道の 河承天, 梁信生, 鄭時雨, 李進白, 梁以立, 文汙, 蔡愛立, 秋萬景 등 8명, 그리고 慶尙道の 李永發, 朴秋日 2명 등 모두 14명이 있다. 그러나 實錄印出 시에는 外方の 刻手 중에 이들 民間刻手는 없고 단지 刻僧만이 동원되었다. 地方에서는 刻僧들의 冊版이나 木活字의 刻字 솜씨가 더 좋은 것이 아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孝宗의 寧陵 遷陵 시에는 忠淸道の 高聖明, 全承龍, 韓斗相, 金爾昌, 白以采, 金善學 등 6명, 全羅道の 陳永弼, 洪實賢, 鄭厚生, 李永白, 朴永男 등 5명, 黃海道の 宋得伊 1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하였다. 두 가지 일에 중복되게 참여한 外方の 民間刻手는 보이지 않는데, 당대 善手들이 동원되는 王室役事의 성격상 15년의 간극이 반영된 듯하다.

刻僧의 신분으로 孝宗의 國葬에 동원된 이는 忠淸道の 行哲, 學守, 承俺 3명과 全羅道の 應祥, 太俊, 雲邊, 玉玄, 敬林, 太祥, 法浩, 贊每, 智日, 天悟, 處善, 海玉, 法寬, 日甘, 應閔, 聖念, 仁和, 法贊 등 18명, 慶尙道の 玄隱, 弘祐, 浩祥, 國正 4명 등 모두 25명이다. 그리고 實錄印出에는 忠淸道の 守玄, 義修, 慧謙 3명과 全羅道の 敏英, 性圭, 勝淳, 尙訓, 玉玄, 德希, 信裕, 天真, 淸卓 등 9명이 동원되었으며, 遷陵 시에는 京畿道の 道天 1명, 忠淸道の 印佑, 雪深, 振惠, 隆哲, 海信, 元應, 學信, 宗悅 등 8명, 全羅道の 處尙 1명으로 10명의 인원이 동원되었다. 여기서 중복되게 그 이름이 보이는 刻僧은 全羅道の 玉玄 한 사람뿐이다. 그는 國葬의 일에는 昌平의 刻僧으로, 實錄印出에는 潭陽의 刻僧으로 참여하였는데, 현재 昌平은 潭陽郡의 일개 面으로 다른 의미는 없다.

10) 김상호, “國朝寶鑑 1848年 刊本の 刻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5집(2010. 6), 113.

4. 主要 刻手의 活動

孝宗과 관련한 세 가지 役事에 참여한 刻手들의 활동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仁祖朝부터 肅宗朝에 사이에 있었던 王室役事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奎章閣과 藏書閣에 전래되고 있는 1600년대의 儀軌들 중에서는 1610년의 「宣祖懿仁王后耐廟都監儀軌」부터 1699년의 「思陵封陵都監儀軌」까지 모두 35건에서 刻手名이 기입되어 있는데, 그 중 刻手들의 거주 지역까지 기재된 자료는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를 비롯해 「仁祖仁烈王后耐廟都監儀軌」, 「莊烈王后尊崇都監儀軌」, 「明聖王后册禮都監儀軌」,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顯宗國葬都監儀軌」, 「莊烈王后明聖王后尊崇都監儀軌」, 「仁敬王后册禮都監儀軌」,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 「太宗元敬王后獻陵碑石重建廳儀軌」 등 11건과 孝宗 관련 3건을 합한 14건이다. 참고로 14건에 기입된 刻手名을 가나다순으로 배열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刻手名 목록

刻手名	年度	地域	刻手名	年度	地域
覺憐	1677	比安	覺行	1650	扶安
姜永祿	1650	求禮	敬林	1659	昌平
敬玉	1675	恩津	京旭	1651	恩山
京會	1651	海南	戒談	1661	原西
戒哲	1661	原西	高聖明	1674	清州
國正	1659,61	草溪	權士仁	1659,61,74,75,77	京
金京祿	1650	全州	金貴善	1674,75,77,81,84	忠州,忠原
金命得	1677	醴泉	金善已	1675	清州
金善學	1674,77	尼山	金雪深(心)	1681,84	清州,西原
金守一	1659	洪州	金信起	1661	京
金愛立	1650,51,61	京	金愛生	1675	廣州
金有哲(鐵)	1675,81,84,95	洪州	金以昌	1675	京
金益天	1661	京	金廷賢(貞顯)	1674,75,77,84,95	京
金種金	1650,51,59,61	京	金秋業	1659	京
金好(虎)龍	1674,75,77	尼山	金厚元	1674	高山
羅天澤	1675	韓山	南印	1695	原州

孝宗의 國葬 및 實錄印出, 遷陵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刻手名	年度	地域	刻手名	年度	地域
德希	1661	潭陽	道堅	1651	陝川
道天	1674	南漢	斗榮	1677	義城
斗一	1651	長水	柳楠	1661	京
隆哲	1674	報恩	文申	1651	順天
文汙	1659	南原	閔戊仁	1659	京
敏英	1661	古阜	閔仲秋	1684	京
朴命才	1677	京	朴永男	1674,75,77	順天,京
朴元(之)吉	1675,77	京	朴仁永	1659	興德
裴永達	1651	全州	白以采	1674,75,77	恩津
法寬	1651,59,61	興陽,順天	法祥	1661	陝川
法贊	1659,61	海南,南原	法浩	1659	錦城
寶訓	1651	恩山	森益	1677	星州
尙眞	1661	星州	尙軒	1675	林川
尙訓	1661	長城	徐泰業	1674	清州
徐後悌	1674,75,77,84	和順,京	善元	1651	昌平
雪深	1674	清州	性圭	1661	南原
聖念	1659,61	寶城	孫辰守	1651	康津
宋得伊(只)	1674,75,77,81,84	安岳,載寧	守玄	1661	西原
舜一(順日)	1675,81,84	恩津	承倫	1651	高昌
勝淳	1661	長城	勝嚴(承淹,俺)	1650,51,59	木川,清安
承天	1677	寶城	信奇	1650	忠原
申得男	1651	京	信連	1651	南平
信蓮	1651	南原	信裕	1661	光州
信俊	1651	玉果	信贊	1651	長水
梁信生	1651,59,61	扶安,高昌	梁以立	1659	南原
吳有進	1650,51,59,61	京	吳學	1659	京
玉玄	1651,59,61	玉果,昌平,潭陽	雲邊	1651,59	任實,長城
雲峰	1651	光州	雲際	1650	槐山
雲贊	1675,81,84	恩津	元寶	1661	安陰
元應	1674,75,77,81,84	懷德	元學	1675	金溝
裕坦	1650	清州	劉太龍	1659	京
尹吉	1684	京	應閑	1661	安陰
應祥	1659	長水	應閑	1675	泰仁
義修	1650,1661	清州,西原	李貴哲	1684,95	京
李生立	1650	泰仁	李成民	1651	京
李守命	1674,77,84,95	京	李秀一	1659,61,74,75,77	京
李時碩	1674,75	京,報恩	李時英(榮)	1675,77,84	京

刻手名	年度	地域	刻手名	年度	地域
李時雄	1695	未詳	李永白	1674	春川,淳昌
李永發	1659	安陰	李五龍	1674,75,77	京
李惟一	1659,61,74,75,77,84	京	李仁益	1659,61	京
李自順	1659,61	洪州	李進白	1659,61	全州
李忠民	1659,61	京	印信	1650	古阜
印英	1651	南平	印佑	1674	忠州
仁化(和)	1651,59	寶城,長興	全墨淡	1677	漆谷
全承龍	1674	洪州	鄭武生	1659	清安
鄭姓生	1674	南原	鄭淑良	1659,61	京
鄭時遇(雨)	1650	全州	鄭仁白	1675	舒川
鄭厚生	1674	南原	趙永俊	1661	昌平
宗敬	1677	寶城	宗悅	1674,77	錦山
智日	1659	和順	陳永弼	1661,74	鎭安
振惠	1674	報恩,恩津	車信元	1695	未詳
贊每	1659,61	南平	蔡愛立	1659	南原
處尙	1674,75	順天	處善	1651,59	長城,玉果
天悟(吾)	1659,61	同福	天真	1661	錦城
清悟	1651	高昌	清卓	1661	順天
草雲	1651	同福	崔萬元	1661,74	京
崔武善	1681,84	清州,西原	秋萬景	1659	光州
忠善	1674,77	咸平	忠熙	1677,81,84	忠州,忠原
坦默	1650	忠原	太上(祥)	1651,59	康津,錦城
太俊	1659,61,77	雲峯,公州	河承天	1659	扶安
學惇	1651	錦城	學守	1659	清州
學崇	1651	潭陽	學信	1674,75	公州
學休	1661	洪州	韓斗相	1674	京,恩津
韓斗星	1659,61,75,77	京	韓振國	1659,61,74,75,77	京
韓天益	1684	京	韓天仁	1684,95	京
海信	1674,77	報恩,恩津	海玉	1651,59	潭陽,興陽
行成	1674,77	聞慶	行哲	1659	清州
玄嘗(隱)	1651,59	星山,星州	玄恒	1651	長興
慧謙	1661	槐山	惠恩	1674	清州
浩祥	1659	陝川	洪律	1677	星州
洪實賢	1674,75,77,81,84,95	南原,安岳	弘祐	1659,61	高靈
輝爭	1674	寶城	希侃	1651	光州

4.1 京刻手 金愛立과 刻僧 學淳

위의 목록에 보이는 刻手들 가운데 주목할 만한 인물로 먼저 金愛立이 있다. 그는 漢陽에 거주하면서 孝宗朝 初期에 仁祖大王實錄纂修廳에서 木活字를 만드는데 吳有進, 金種金 등과 더불어 참여하였다. 그리고 玉冊을 만드는 두 차례 王室役事에도 吳有進, 金種金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십년이 채 되지 않아 孝宗國葬都監에 50명이 넘는 刻手가 참여해 玉冊과 誌石 등을 새길 때에도 역시 吳有進, 金種金과 더불어 金愛立이 동원되었다. 당시 都監에서는 刻手들의 솜씨를 시험하였는데, 그는 年老하고 눈이 어두워 능히 入刻할 수 없다고 하여 潭陽의 刻手 田士立, 長淵의 刻手 金得興과 함께 放送되고 만다. 刻手 중에 며칠 동안 刻字한 것이 제 모양을 이루지 못해 막중한 刻役을 맡길 수 없다고 放送된 扶安의 金雲建, 靑松의 趙永元 등과는 격이 다른 이유이다. 이 때 學淳은 役事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이 都監에 도착하였으나, 병에 걸려 活人署로 옮겨진 潭陽의 刻僧이다. 이후 차도가 있었는데, 刻役은 맡기기 어렵다고 하여 역시 放送되었다.¹¹⁾

學淳은 寺刹板目錄을 참고하면,¹²⁾ 1618년부터 1647년까지 順天 松廣寺에서 開板한 『金剛般若波羅密經』, 『禪家龜鑑』, 『佛設預修十王生七經』, 『大方廣佛華嚴經』, 『豫修十往生七齋儀纂要』에 그 이름이 실려 있다. 동일인물이라면 30년의 경험이 넘는 원로 刻手로 중대한 國葬都監의 刻字役에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경 길에 병이 들어 일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잠시 요양한 뒤 다시 내려가게 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國葬都監의 일로 당시 順天에서 같이 올라온 刻僧 法寬과 日甘 두 사람이

11) 『孝宗國葬都監儀軌』 8月 6日. “本房扶安刻手金雲建靑松刻手趙永元等 皆以才拙眼暗不辨字劃數日所刻不能成形 莫重刻役不可付 諸如此之手竝只放送(中略)京刻手金愛立潭陽刻手田士立長淵刻手金得興等 皆以年老眼暗不能入刻是乎旆 潭陽刻手僧學淳段當初以染病出置活人署爲有如今 今雖差病亦難刻役竝只放送.”

12)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研究,”(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1), 朝鮮有刊記寺刹板의 刻手名目錄 參照.

있다. 法寬은 이미 1647년에 松廣寺에서 『豫修十往生七齋儀纂要』를 새길 때 學淳과 함께 참여하였는데, 그 보다 십여 년 전 寶城 大原寺板 『禪門拈頌集』에도 그의 이름이 보인다. 日甘(鑿)은 順天의 仙岩寺와 興國寺에서 1660년과 1664년에 『妙法蓮華經』, 『緇門警訓』을 새긴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學淳이나 法寬보다는 젊은 刻手였을 것이다.

年老한 京刻手 金愛立은 이후 『孝宗大王實錄纂修廳儀軌』에 金種金, 韓斗星, 崔萬元 등과 더불어 참여하였다. 당시 印出의 일은 시급한데 京中에는 刻字匠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金種金에 이어 그의 이름이 두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힘이 드는 江華石에의 刻字가 아닌 木活字에의 새김에는 원로 刻手 金愛立의 나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4.2 寺刹板의 刻手

4.2.1 朴永男 等の 民間刻手

民間의 刻手 가운데 寺刹板에 그 이름이 보이는 刻手는 李永發, 韓斗星, 崔萬元, 朴永男, 李五龍 등이 있다. 먼저 孝宗의 國葬 일에 참여한 安陰의 李永發은 1665년에 같은 지역인 安陰의 靈覺寺에서 開板된 『妙法蓮華經』의 刻手 李榮發과 같은 인물로 여겨진다. 京刻手 韓斗星은 國葬의 일뿐 아니라 孝宗實錄의 印出에 참여한 인물이다. 그는 그 외에도 1675년, 1677년의 다른 王室役事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는데, 1673년에 開板된 楊州 佛岩寺板 『釋氏源流應化事蹟』에 崔萬元, 李五龍, 朴永男, 李守命,¹³⁾ 道天과 더불어 그의 이름이 보인다.

韓斗星과 더불어 위의 佛岩寺 開板佛事에 참여한 京刻手 崔萬元은 『孝宗實錄』의 刊行뿐만 아니라 寧陵 遷陵 때 일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그리고 朴永男은 寧陵 遷陵의 役事에는 順天에서 살다 동원되었지만 이후에는 漢陽에 거주하며

13) 京刻手 李守命은 1674년, 1677년, 1684년, 1695년의 다른 王室役事에도 참여한 기록이 많은 刻手이다.

1675년, 1677년의 다른 王室役事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는 인물로 1663년에 開板된 江原道 淮陽의 表訓寺板 『妙法蓮華經』의 刻手 20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全羅道, 江原道, 京畿道 등 경향 각지에서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冊板, 玉冊, 誌石의 刻字役에 두루 정통한 刻手였다고 말할 수 있다.

孝宗寧陵의 遷陵 시 참여한 京刻手 李五龍은 佛岩寺의 開板佛事뿐만 아니라 1675년, 1677년의 다른 王室役事에도 위의 朴永男과 더불어 참여한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京刻手들이 각종의 刻字 일에 몇몇이 무리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그것이 특별히 중대한 國役일 때에는 전국의 솜씨 있는 刻手들이 다시 한 자리에 모이는 사례가 빈번하였다는 사실을 당시 문헌의 기록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4.2.2 仁化 等の 刻僧

僧侶身分의 刻手로서 寺刹板에 그 이름이 보이고 孝宗 國葬의 刻字役에 동원되었던 인물로는 이미 위에서 살펴본 法寬이 있다. 그와 더불어 1651년의 다른 王室役事에 함께 참여한 刻僧 세 사람의 활동을 보면, 먼저 仁化(和)는 寶城, 長興에 주로 머물면서 1635년 泰仁 龍藏寺의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刻字 일을 杜一 등 11명의 刻手와 함께 해냈으며, 1659년에는 長興 天冠寺의 『支提山事績』을 혼자 새겨낸 것으로 나타난다. 1603년, 1604년, 1611년의 能仁庵板과 1607년, 1608년의 松廣寺板에서도 같은 이름이 보이는데, 동일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康津, 錦城에 주로 머물렀던 太上(祥)은 1626년과 1634년에 長興 天冠寺의 『圓頓成佛論』과 『禪源諸詮集都序』를 文申 등과 함께, 1635년에 松廣寺의 『大方廣佛華嚴經疏』는 印英 등과 함께 새겨낸 刻僧이다. 또한 潭陽과 興陽에 머물렀던 海玉은 1647년에 順天 松廣寺板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를 法寬과 더불어 새겨냈으며, 1656년에는 樂安의 澄光寺板 『詠月堂大師文集』을 세 사람의 刻手와 더불어 새겨낸 것으로 나타난다.

그밖에 孝宗의 國葬에 참여한 刻僧 중에 南平의 贊每는 1661년의 다른 王室役事에도 참여하였는데, 1663년 江原道 淮陽의 表訓寺板 『妙法蓮華經』에 處祥 등과 더불어 그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淸州의 學守(修)는 1632년 京畿道 朔寧의 龍腹寺板 『妙法蓮華經』과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33년, 1634, 1635년의 같은 龍腹寺板 『禪家龜鑑』,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禪門拈訟集』에서 그 이름이 보인다. 이와 같이 寺刹板을 새겨낸 많은 刻僧들이 國葬都監에서 玉冊이나 誌表石을 새기는 일에 다수 동원된 사실을 통해 刻僧이 冊板뿐 아니라 碑石의 刻字 일까지 정통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孝宗의 實錄印出에 참여한 刻僧으로 寺刹板에서 그 이름이 보이는 인물은 南原의 性圭와 順天의 淸卓이 있다. 性圭는 1686년에 樂安의 澄光寺에서 『淨土寶書』를 다른 세 사람의 刻手와 새겨냈고, 淸卓은 1664년 順天 興國寺에서 『妙法蓮華經』을 다른 여섯 사람의 刻手와 그리고 『緇門警訓』은 應閑 등 11명의 다른 刻手와 더불어 새겨낸 사실이 확인된다.

孝宗의 寧陵 遷陵 시 참여한 刻僧으로 寺刹板에서 그 이름이 확인되는 인물은 南漢의 道天和 懷德의 元應, 順天의 處尙이 있다. 먼저 道天은 1673년에 간행된 楊州 佛岩寺板 『釋氏源流應化事蹟』에서 다른 35명의 刻手와 함께 그의 이름이 보인다. 그리고 元應은 이후 1675년, 1677년, 1681년, 1684년의 王室役事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는데, 1685년에 開板된 安州 禪定庵의 『禪門拈訟說話』, 1686년 樂安 澄光寺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에 그 이름이 보인다. 지역 간의 차이가 있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두 개의 판본이 각기 수십 명의 많은 刻手が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處尙은 1675년에 다른 王室役事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데, 1663년의 江原道 淮陽의 表訓寺板 『妙法蓮華經』의 刻手 處祥和 동일인물일 것이다. 위의 南平 贊每와 한 무리였음을 감안하면 된다.

그밖에 寺刹板에 그 이름이 보이는 인물로 孝宗과 관련한 세 가지 役事가 아닌 다른 國役に 참여했던 刻僧이 다수 있다. 役事の 발생 순서에 따라 그들의 활동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651년의 王室役事에 참여한 南平의 印英은 1635년 松廣寺板 『大方廣

佛華嚴經疏』의 여러 刻手 중 한 사람이며, 陝川의 道堅은 1647년에 간행된 靑松普賢寺板 『大慧普覺禪師書』와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刻手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리고 長水의 斗一은 1635년에 간행된 泰仁 龍藏寺板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의 刻手 杜一과, 그리고 文申은 1634년 長興 天冠寺板 『禪源諸詮集都序』의 刻手 文信과 동일인물일 것이다. 또한 光州의 希侃은 1665년 慶尙道 安陰의 靈覺寺板 『妙法蓮華經』의 刻手 熙侃과 동일인물일 수 있다. 같은 板의 刻手인 陝川의 法祥은 1661년 王室役事に 참여한 사실이 있다.

다음으로 1675년의 王室役事に 참여한 泰仁의 應閑은 1664년 順天의 興國寺板 『妙法蓮華經』과 『緇門警訓』의 刻手 중 한 사람이며, 恩津의 敬玉은 1681년 같은 지역 恩津의 雙溪寺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刻手 3명 중 한 사람이다. 특별히 1675년뿐만 아니라 1681년, 1684년의 王室役事에도 참여했던 恩津의 舜一(順日, 一)은 위의 雙溪寺板 『佛說大報父母恩重經』의 刻手 舜日, 1685년 咸陽의 安國寺板 『妙法蓮華經』의 刻手 順一과 동일인물일 것이다. 그는 달리 쓰인 한자이름만큼이나 경향각지에서 여러 책판과 옥책 등을 새긴 솜씨 있는 刻僧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恩津의 雲贊은 舜一과 1675년, 1681년, 1684년 王室役事뿐만 아니라 雙溪寺의 開板佛事에도 함께 하였다.

그밖에 1677년 王室役事に 참여한 寶城의 宗敬은 1661년 密陽의 靈井寺板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29명의 刻手 중 한 사람이며, 1686년 樂安 澄光寺板의 『金剛般若經疏論纂要刊定記會編』의 58명의 刻手 중 한 사람인 宗鏡과 동일인물일 것으로 여겨진다.

5. 結語

孝宗과 관련한 세 가지 役事に 참여한 刻手들을 중심으로 그들 刻字 일의 성격과 동원태도, 刻字 활동의 내역 등을 살펴보았다. 확인된 주요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王室役事에 동원된 경향각지의 民間, 또는 僧侶 신분의 刻手는 대부분 善手로서 그 솜씨가 인정된 사람들이었으며, 年老하거나 솜씨가 부족하여 일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刻手는 일찍이 放送되었고, 宋得과 洪實賢과 같이 평판이 좋은 다른 인물로 대체되기도 하였다.

둘째, 王室役事에 동원된 상당수의 善手들은 實錄을 인출하기 위한 木活字나 國葬 때 쓰이는 玉冊, 또는 遷陵 시 제작되는 誌石 등과 같은 그 刻字재료에 관계없이 刻手로 참여하였으며, 지역 안팎의 寺刹 開板佛事에도 수시로 참여하였다.

셋째, 都監에서는 같은 類의 王室役事가 발생 시 이전에 동원된 善手의 上送을 地方官衙에 요구하였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해당 刻手보다는 젊은 刻手が 올려 보내졌다.

넷째, 誌石의 刻字 일은 능력이 뛰어난 刻手는 하루에 10字 정도를 새겼으나, 재주가 모자란 刻手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글자의 형태조차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刻字의 일이 마무리되면 外方의 刻手들을 먼저 放送하였고, 京刻手들은 남아서 나머지 일을 정리하였다.

다섯째, 孝宗과 관련한 세 가지 役事에는 京刻手보다는 外方刻手의 동원이 배 이상 많았으며, 지방의 경우 民間刻手보다는 刻僧이 배 가까이 더 동원되었다. 특별히 京刻手와 刻僧은 여러 王室役事 및 寺刹의 開板佛事に 한 무리로 참여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여섯째, 당대 유명한 善手로는 京刻手 李守一 형제와 外方刻手 宋得, 洪實賢, 刻僧 法寬 등 다수가 있다. 특별히 京刻手 金愛立과 潭陽의 刻僧 學淳은 당시 年老한 刻手로 그들의 활동은 전후의 다른 王室儀軌나 寺刹板에서도 확인이 된다. 儀軌의 문건에 그들에 관한 특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刻手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짐작하게 한다.

일곱째, 儀軌에서나 寺刹板에서 많은 刻手의 이름이 다른 한자로 표기되는데, 동인인물의 여부는 활동 年代나 地域도 중요하지만 같은 무리였을 동료 刻手名이 추정에 더 도움이 된다.

<참고문헌>

「宣祖懿仁王后祔廟都監儀軌」.

「仁祖大王實錄纂修廳儀軌」.

「仁祖仁烈王后祔廟都監儀軌」.

「莊烈王后尊崇都監儀軌」.

「明聖王后冊禮都監儀軌」.

「仁宣王后國葬都監儀軌」.

「顯宗國葬都監儀軌」.

「莊烈王后明聖王后尊崇都監儀軌」.

「仁敬王后冊禮都監儀軌」.

「明聖王后國葬都監儀軌」.

「太宗元敬王后獻陵碑石重建廳儀軌」.

「思陵封陵都監儀軌」.

김상호, “國朝寶鑑 1848年 刊本の 刻手に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45輯(2010. 6). 97-117.

김상호, “國朝寶鑑 1782年 板本の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44輯(2009. 12). 193-209.

김상호, “英祖年間の 王室墓域 石刻役事に 참여한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43輯(2009. 9). 93-114.

김상호, “朝鮮時代 刻手の 石刻 活動考.” 『書誌學研究』 41輯(2008. 12). 67-81.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に 관한 研究.” 博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90.

